

김기현 ‘과반 굳히기’냐...안철수 ‘결선 뒤집기’냐

국힘 당권 레이스 막판 표심잡기

金, ‘1차 끝내기’ 세몰이 전력투구 安, “불공정 경선”...대통령실 견제 千, “심판 대상”...친윤 세력 저격 黃, 김후보 땅 투기 의혹 집중 타격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둔 2일 당권 주자들은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최대 표밭인 수도권을 끝으로 6회에 걸친 합동연설회가 마무리되는 등 전대 레이스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선두를 굳히려는 김기현 후보와 그를 뒤쫓는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의 막판 각축전이 펼쳐졌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결선투표 여부를 결정할 과반 확보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공정성 테일러안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485명의 차기 당 대표 당선 예상은 김기현(45.9%)·안철수(23.0%)·천하람(12.7%)·황교안(10.6%) 후보 순이었다. 이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후보는 대세론을 이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 결선투표 없이 오는 8일 전대에서 당선을 확정한다는 목표로 세몰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와 ‘김조(김기현-조경태) 연대’에 이어 ‘김윤(김기현-윤상현) 연대’까지 중도낙방당 대표 후보들과 잇달아 손잡으며 ‘통합 정치 적임자’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날만 해도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주요 임원단 및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장단, 윤상현 의원 캠프 전 총괄본부 주요 임원단 등 김 후보 지지

선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체 분석에서 1차 투표 과반 득표를 확신하고 있다”며 “1차 투표에서 끝내지 못한다면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표 차이는 2차 투표에서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부동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결선 투표에 진출하면 뒤집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는 전대 초반 친윤(친윤석열)계에 날을 세워 오다가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 이후 비판을 삼가왔지만, 최근 전대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선관위를 향해 불만을 표출하는 등 여론 주류 세력과 다시 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안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도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과연 선수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다가 쓰러진 것인지 당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전대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후보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실의 압박에 ‘왜 한발 물러섰느냐’는 내부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해명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결선투표로 갔을 경우, 선명한 비윤(비윤석열) 색채를 보이는 천하람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천 후보는 개혁과 심판 대상으로 연일 당내 친윤 세력을 저격하고 있다.

특히 안 후보 지지층을 자신이 흡수함으로써 결선투표에 진출해 김 후보를 꺾는 시나리오를 띄우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경 보수 성향의 황교안 후보는 자신이 ‘보수적자(嫡子)’라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하는 동시에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 후보와 접치는 전통 보수 지지층을 자신 쪽으로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안철수(왼쪽부터), 황교안, 김기현, 천하람 당 대표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특수전 항공기 한국 상공서 실사격...주요 표적 정밀타격 훈련

AC-130J 한반도 처음 전개

한미가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국 특수전 항공기를 동원한 가운데 북한 핵시설 등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을 점검했다.

합참은 지난달 27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한미 연례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현장을 찾아 작전수행절차를 점검하고 특수전 장비들과 결전 준비 의지를 다졌다 2일 밝혔다.

이달 중순 예정된 ‘자유방패’(Freedom Shield-FS) 훈련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티크 나이프 훈련은 지난달 초 시작됐으며, 이번 주에는 한미 특수전 요원들

이 항공기 화력유도훈련을 통해 전시에 적 지역 표적을 항공화력으로 정밀 타격하는 작전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가 처음으로 출동했다. 하늘의 전함으로 통하는 이 항공기는 유사시 대륙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반도도 출동하는 증원전력에 속한다.

AC-130J는 1만피트 이상 상공에서 30mm 기관포와 105mm 곡사포뿐 아니라 AGM-114(헬파이어), AGM-176(그리핀), GBU-39(SDB) 등 정밀유도무기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훈련에 동원됐다.

합참이 공개한 영상에서 AC-130J는 GBU-39, AGM-176, AGM-114로 무인도의 목표지점을 정밀 타격했고, 기관포와 곡사포로 섬 사면

을 따라 폭격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AC-130J는 동종 가운데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한반도에 처음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특수부대가 항공지원을 받아 적진 내부로 침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뤄진 특수전을 숙달하는 ‘실질적 공중 대 지상 다영역(multi-domain) 훈련’이다. 근접항공지원(CAS), 항공관제, 인도주의 위기 대응, 인질 구조 등이 세부 내용이다.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도 티크 나이프 훈련 내용에 포함된다는데 뜻에서 ‘참수작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군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p 올라 37%

NBS 조사... ‘쌍특검’ 57% 찬성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1%로 각각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4%p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43%로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시’가 19%로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중에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고, ‘경

험과 능력이 부족해서’는 25%였다.

윤 대통령의 노조 관련 지시를 두고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3%,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9%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27%였다. 정의당은 3%, ‘지지 정당 없음’은 28%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전회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에 대한 ‘쌍특검’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7%,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3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주호 “학폭 정책 손질...정시 반영도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폭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폭폭력(학폭)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이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이듬해 정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

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폭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역시 이 부총리였다. 이 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 엄벌주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게 맞다고 보지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고 있는냐는 물음에도 그는 “학폭 대책은 그런 직접적인 수단도 있지만 인성교육, 스포츠 에능 교육 등으로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강제 전학한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에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교육부도 정시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3-1호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후보자 모집공고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임용 예정 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 직위	인원	임기	주요 직무내용
상임이사	1명	임용일로부터 3년	•이사장을 보좌하고 본부서의 직무를 겸임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2.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용예정 직위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구분	직위	자격요건
포괄적 자격요건	공통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사람
구체적 자격요건	상임이사	•조직관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갖춘 사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체적 자격요건	상임이사	2.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상임)에 위촉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임사대장제(예산등록의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임제(업무심사) 결과 위임승인 결정 가능한 사람

• 연령, 학력,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912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66조 및 제36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9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에 규정된 죄
 - 다. ‘스토카홀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카홀름죄
- 69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 또는 징역유예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역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로 해원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지방공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로서 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참조(상임이사 직무수행 요건)

4. 보수(연봉)

•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단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

5.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3(금) ~ 2023. 3. 20(월) 15: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5: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가능시간은 09:00~18:00(12:00~13:00 제외)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 주소 : (59713) 전남 여주시 문수로 106, 8층(문수동, 대흥빌딩) ☎ 061-662-8218

• 원서교부 : 원서일시는 여주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서 교부 받거나, 여주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yumcorp.or.kr)의 ‘알림마당-채용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① 지원서(소정양식) 1부
 -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 입원동기, 경영철학, 경영경험, 주요경력, 업적분야, 사회봉사 실적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
 - ③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참조하여 임용지원직위 담당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기관운영 방침 및 경영혁신계획을 포함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 ⑤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⑥ 주민등록 초본(영역사항 포함) 1부

6.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면접심사 생략가능
-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점 부여
 - 심사항목
 - ① 조직회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공단)경영 능력
 - ②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③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④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⑤ 경영수준개선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합격자결정 : 서류심사 최종평점 고득점자 순 합격자 결정(3배수 이내)
 - 합격자 발표(예정일) : 지원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 합격자는 개별 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공공연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건강 등 총 6개 평가 항목에 대해 면접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
 - 면접심사 예정일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후 10일 이내

•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 공고

7. 기타사항

- 경력, 자격 등 제출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본 모집공고에 대한 응모자가 2명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시 본 공고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로 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에게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모제비 및 심사 일정은 공단 및 임원추천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여주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단 재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제출)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구인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 결정이 확정된 이후 구직자(해당정당)에게는 채용안정(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직자에게는 채용안정(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직자에게 구직자의 요구 없이 지체없이 반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구공고동부영으로 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은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직자에게는 채용안정(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포탈로 보며, 예외로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에게 부담한다. 다만, 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채용여부 결정이 확정된 이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8. 문의사항

- 접수처와 동일(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 061-662-8218